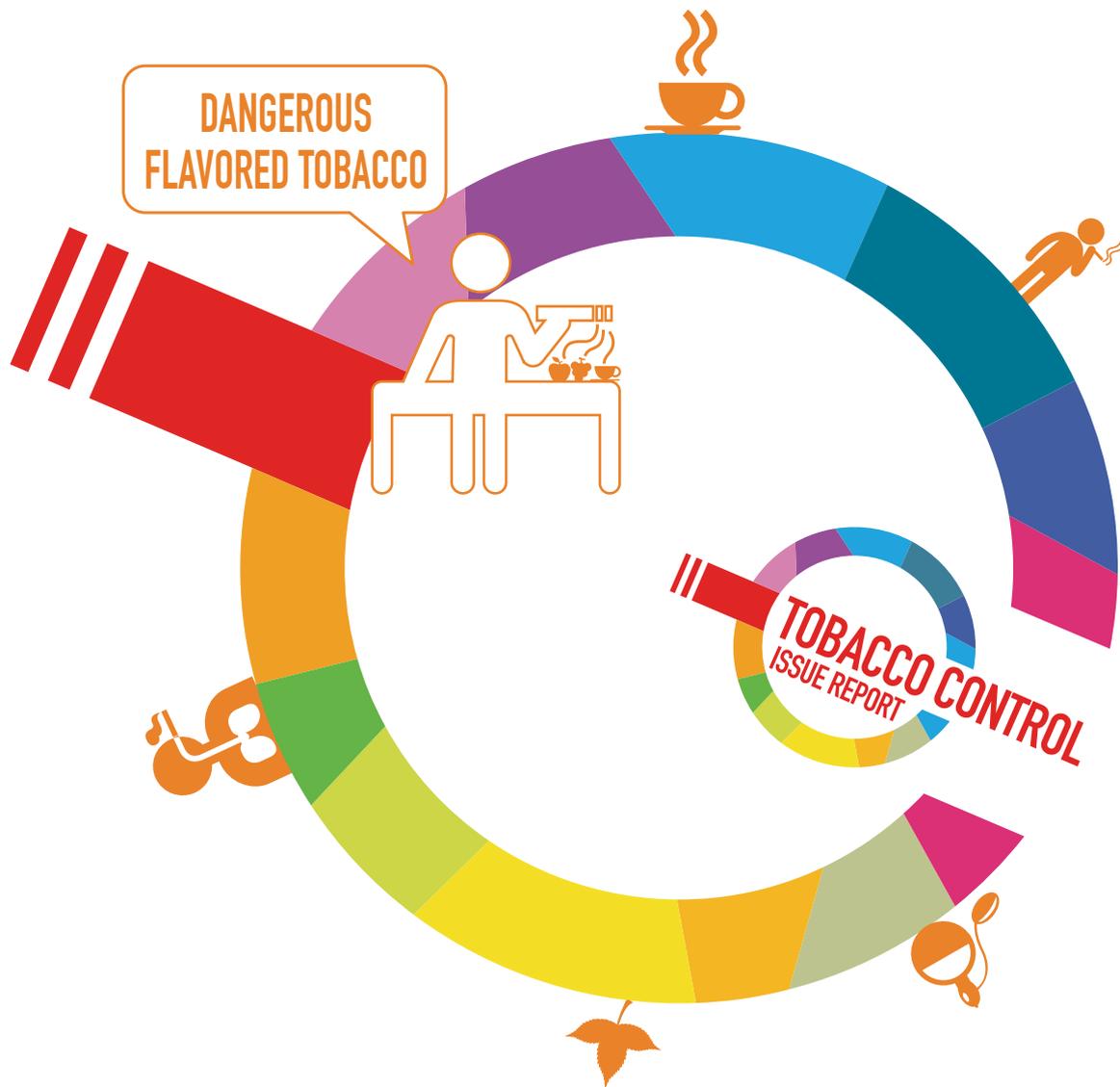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금연이슈리포트



커피로 가리고, 민트로 숨기고...
가향담배(Flavored tobacco)가 당신을 노린다
가향담배 규제의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 현황

Infographic

가향담배의 진실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가향담배,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유혹하기 위한 꼼수
국내외 가향담배 규제 현황
국내 가향담배 규제가 시급한 이유

Monthly Index

담배로 인한 사망률

6

Vol. 25
June
2015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ONTENTS

Infographic

가향담배의 진실

Monthly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09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10 가향담배,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유혹하기 위한 꼼수

12 국내외 가향담배 규제 현황

13 국내 가향담배 규제가 시급한 이유

Monthly Index

14 담배로 인한 사망률

발행인 장석일
기획총괄 오유미
편집·구성 김지혜, 이정은, 장영림

가향담배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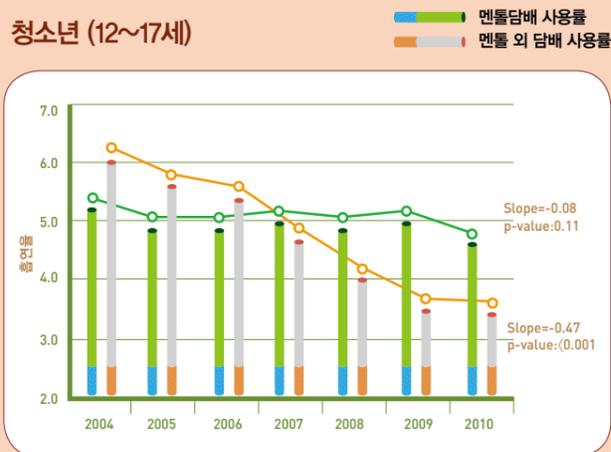
달콤한 맛과 시원한 향기에 가려진
담배회사의 전략

가향(멘톨)담배가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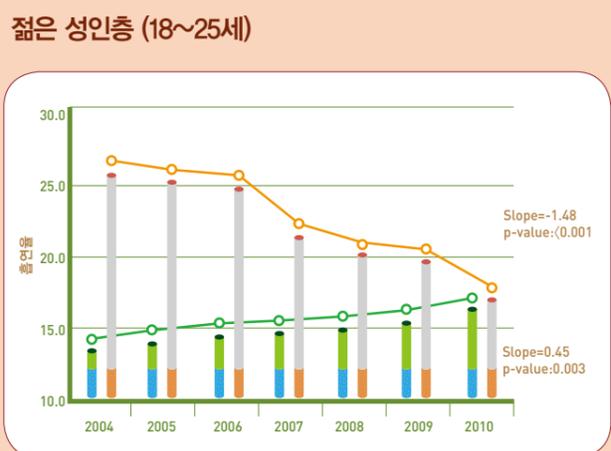
2004~2010년, 미국에서 멘톨 외 담배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멘톨 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12~17세)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젊은 성인(18~25세)의 멘톨 사용자 비율은 증가함

출처 : Giovino, G., Villanti, A., Mowery, P., Sevilimedu, V., Niaura, R., Vallone, D., & Abrams, D. (2015). Differential trends in cigarette smoking in the USA: Is menthol slowing progress? *Tobacco Control*, 24(1), 28-37.

청소년 (12~17세)



젊은 성인층 (18~25세)



출처
서호주암협회(Cancer Council Western Australia). Fact sheet on Cigarette Ingredients, 2009 (<https://www.cancerwa.asn.au/resources/2009-12-22-cigarette-ingredients-fact-sheet.pdf>)
Campaign for Tobacco-Free Kid, Designed for Addiction, June 23, 2014. (https://www.tobaccofreekids.org/content/what_we_do/industry_watch/product_manipulation/2014_06_19_DesignedforAddiction_web.pdf)

이 달의 정책



호주국립대, 캠퍼스 내 전면 금연 선언

호주국립대(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캠퍼스 내부를 담배 연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캔버라의 본 캠퍼스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부속 캠퍼스에도 적용되며,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캠퍼스 내 담배제품의 광고 및 판촉도 금지된다. 이안 영(Ian Young) 부총장은 "우리는 이번 발표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은 구성원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측은 금연을 원하는 학내 구성원에게 무료금연수업(QUIT courses)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물담배 등 신종담배 금지 결정

싱가포르 보건부가 이달 15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종담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15일부터 물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며, 내년 8월부터는 코담배, 씹는 담배도 금지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아직 싱가포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제품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싱가포르 시장에 들어오거나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이들 제품들이 비흡연자들을 흡연으로 이끄는 '관문(gateway or starter)'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가향담배에 추가적 규제 조치

캐나다 보건부가 오는 12월부터 발효되는 가향담배에 대한 추가적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다. 캐나다는 2009년에 전 세계에서 켈련(cigarettes), 리틀시가(little cigars), 말아 피우는 담배용 종이(blunt wraps)에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할 수 있는 초콜릿, 풍선껌 등의 가향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이다. 그러나 그 이후 담배업계는 리틀시가의 정의가 '1.4g 미만이거나 켈련 필터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량이 1.4g 이상인 시가제품을 생산하거나 필터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가담배(new cigar type)'를 만들어 가향담배 판매를 이어갔다. 이러한 형태의 시가담배는 심지어 리틀시거나 켈련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팁 페이퍼(켈련과 필터를 이어주는 종이, tipping paper)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향 금지 담배목록에 '1.4g 이상 6g 미만의 시가담배와 팁 페이퍼를 사용하고 종이를 나선형으로 말지 않은 시가담배'를 추가하는 개정을 실시했다. 보건부는 "이번 추가적 조치는 청소년을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와이 주, 법적 흡연 연령 상향 조정

하와이 주가 미국 50개 주에서 법적 흡연 연령을 만 21세로 올린 첫 주가 되었다. 하와이 주지사 데이비드 이지(David Ige)가 이달 19일 법적 흡연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포괄적인 담배규제 노력의 일부로서 (담배구입) 최소 연령을 올리는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고, 아동들이 담배 없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해당 내용은 기존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초에는 500달러(약 55만원), 이후 재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약 2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달의 연구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금연상담전화 등록자의 금연율

Kerkvliet, J., Wey, H., & Fahrenwald, N. (2015). Cessation among State Quitline Participants with a Mental Health Condition.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6), 735-741. doi:10.1093/ntr/ntu239

본 연구는 주(state)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보건 유병률을 평가하고, 정신보건문제 유무에 따른 집단 간 금연성고를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등록자(10,720명)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이들의 등록당시와 등록 7개월 후 인구학적 정보와 담배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결과, 자가보고 정신보건 유병률은 19.8%(10,720명 중 2,086명)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등록자와 그렇지 않은 등록자의 금연율(전체 등록자 중 등록 7개월 후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16.4%, 21.5%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7개월 후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사람 수 기준 금연율은 각각 36.9%, 44.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신보건문제와 금연의 연관성에 대한 보정 오즈비는 전체등록자와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등록자 모두 동일하여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등록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3% 적게 금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사람이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금연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덜 금연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금연율이 왜 더 낮은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한 후의 지역사회 청소년 흡연 감소

Schneider, S., Buka, S., Dash, K., Winickoff, J., & O'donnell, L. (2015). Community reductions in youth smoking after raising the minimum tobacco sales age to 21.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2207*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것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줄이기 위한 유망한 전략으로써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이것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지역 청소년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에 최저 구입연령을 상향조정한 메사추세츠 주 니덤(Needham) 지역과 그 주변 16개 지역사회의 청소년 흡연 실태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보스톤 서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되는 메트로웨스트 청소년 건강조사(MetroWest Adolescent Health Survey)를 이용, 니덤의 현재 흡연율과 담배구매 경향을 16개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니덤 청소년의 30일 흡연율 감소분(13%→7%)은 비교 지역들(15%→12%)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 인종, 학년(10-12학년)과 관계없이 동일했다. 니덤 현재 흡연자의 담배구매 또한 비교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했다. 본 연구는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율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올리는 지역사회 조치를 지지해준다.

대학생 전자담배 사용이 궤련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향적 분석

Sutfin, E., Reboussin, B., Debinski, B., Wagoner, K., Spangler, J., & Wolfson, M. (2015). The Impact of Trying Electronic Cigarettes on Cigarette Smoking by College Students: A Prospec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doi:10.2105/AJPH.2015.302707*

본 연구는 전자담배 사용이 향후 궤련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7개 대학과 버지니아주 4개 대학의 첫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스라인 조사를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번의 추적조사 및 종단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결과변수는 6차 조사 때의 현재(궤련)흡연상태로 측정되었다. 베이스라인 조사 당시 현재 흡연을 하면서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은 271명이었고, 이들에 대해 각 조사 때 지난 6개월 동안의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5차 조사 때까지 43.5%가 전자담배 사용을 시도했으며, 흡연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전자담배 사용 시도(보정오즈비=2.48; 95% 신뢰구간=1.32, 4.66)와 친구의 흡연(보정오즈비=4.20; 95% 신뢰구간=2.22, 7.96), 다른 담배제품 사용경험(보정오즈비=1.63; 95% 신뢰구간=1.22, 2.17)이 6차 조사 시 흡연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 시도는 궤련 흡연을 줄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의 이슈



포도, 오렌지, 애플민트, 헤이즐넛 커피, 모히토... 이들의 공통점은? 사탕도, 음료수도 아니다. 정답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가향담배(Flavored tobacco)에서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이다. 담배회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흡연을 조장하여 담배중독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달콤한 향에 숨겨진 가향담배의 진실을 파헤쳐 보자.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가향담배는 말 그대로 담배제품에서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를 뜻한다. 정의는 단순하지만 가향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이른바 가향물질의 종류는 어마어마하다.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와 관련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제9조 및 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포도당, 당밀, 벌꿀, 소르비톨 등의 설탕 및 감미료, 벤젠알데히드, 말톨, 멘톨, 바닐린 등의 가향물질과 계피, 생강, 민트 등의 허브 및 향신료 등이 담배제품을 만들 때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에 포함된다. 가향담배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궤련담배 뿐 아니라, 말아피는 담배와 담배종이, 물담배나 무연담배에서도 볼 수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자가 니코틴 액상에 본인이 선호하는 맛과 향의 향료를 직접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 되기도 한다. 담배제품에 향은 주로 제조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입혀지는데, 맛 성분을 입히는 1차 가향(casing)과 향을 더욱 강하게 입히기 위한 2차 가향(top dressing)이 이루어진다. WHO에서는 미세캡슐을 도포(micro-encapsulation)하거나, 가열(thermal-activated), 혹은 필터에 향을 넣어 내장하는 것(filter-embedded additives), 쉽게 말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캡슐담배까지 가향담배로 보고 있다.

담배에 “가향”을 하는 이유

담배에 이런 특정한 ‘처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담배의 텃고 매운 맛을 부드럽게 바꾸거나, 담배 연기의 거친 특성을 감추기 위해서다. 더불어, 이러한 향을 넣거나 첨가물을 넣음으로써 니코틴이 더 잘 흡수되게 만들거나, 담배의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첨가되는 가향 물질인 설탕 등의 감미료의 경우를 보자. 담배에 설탕이 첨가되면 니코틴의 씹쓸한 맛을 경감시키는데 이 때문에 흡연자들은 설탕 함량이 높아질수록 담배의 맛과 풍미가 더 좋다고 느끼게 된다. 코코아 성분 중의 테오브로민과 커피의 카페인도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성분이 담배에 첨가되면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게 된다.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것으로 광고되는 멘톨은 말단신경을 마비시켜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담배에 첨가되는 물질 중에서 암모니아, 카페인, 타우린 등은 그 자체로도 독성이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될 경우 독성을 띄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감미료의 경우 불에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맛과 향에 가려져 일반담배보다 가향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가향담배,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유혹하기 위한 꼼수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중독을 촉진하고, 실제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는 가향담배는 사실 청소년이나 비흡연자들을 신규 흡연자로 유도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이다. 특히 어른에 비해 단 음식을 더 많이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쉽게 현혹하기 위하여 사탕, 풍선껌 등을 연상시키는 과일향이나 코코아, 바닐라 향 등 달콤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은 담배업계가 청소년을 공략하고 있음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최대 담배제조사 중 하나인 R.J. 레이놀즈 사에 합병된 Brown and Willams 사(社)의 경우, 이미 1984년에 연구를 통해 향을 첨가한 궤련 제품이 젊은 세대와 비흡연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필립모리스 사에서는 90년대에 18세~34세 사이의 젊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쉽게 수용되는(socially acceptable) 향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기도 했다.

가향담배를 규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더한 경우 금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장 대표적인 가향담배인 멘톨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기적으로 흡연하게 되는 확률이 더 컸으며, 니코틴 의존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톨성분이 담배의 쓰고 텃고 맛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기관지에서 느껴야 할 자극을 못 느끼게 만들면서 ‘멘톨담배가 아닌 담배보다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가향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 흡연의 횟수와 양을 늘리게 하고 끝내 담배 중독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국내외 가향담배 규제 현황

해외에서는 가향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제품의 규제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실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 국가들은 가향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향담배 금지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해외 가향담배 규제 사례

브라질, 세계 최초로 멘톨 함유 담배 금지

브라질은 2012년에 전 세계 최초로 멘톨을 포함하는 모든 가향물질이 함유되는 담배제품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한 나라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포 후 18개월 후에는 멘톨이 함유된 궤련담배, 24개월 후에는 그 외 모든 가향담배제품의 시판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칠레 역시 가향물질이 담배의 독한 맛을 감추어 미성년자의 흡연을 부추킨다는 이유로 브라질의 뒤를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멘톨을 포함하는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 담배연기에도 가향물질 함유될 수 없도록 제정

미국 FDA는 2009년에 궤련담배의 어떠한 구성물(연초, 필터, 담배를 마는 종이 등)에도

각종 가향담배제품



시가필로



말아피우는 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담배와 멘톨 외의 물질을 첨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미국 역시 이들 가향담배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조장하여 흡연 증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규제를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법에 따르면 궐련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물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에도 가향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되며, 가향물질의 종류에는 허브, 향신료, 딸기, 포도, 오렌지, 계피, 파인애플, 바닐라, 코코넛, 코코아, 초콜릿, 커피 등 담배와 담배연기에서 특유의 향을 내는 물질로 나타나 있다. 미국 FDA에서는 이들 가향담배의 제조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까지 적용되며, 추후 멘톨의 사용과 궐련 외 담배제품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가향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캐나다는 2009년에 궐련담배, 담배 마는 종이, 그리고 1.4g 미만의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리틀시가(little cigars)와 시가릴로(cigarillos)에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을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기존의 담배규제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15~19세 청소년의 리틀시가 또는 시가릴로 사용률은 2009년 8%에서 2012년 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담배제조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가향물질을 담배제조에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시가릴로의 경우 담배 함량을 1.4g 이상으로 조정하여 가향물질 첨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물담배, 무연담배 및 시가담배 등 2009년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가향물질이 계속 사용되었다. 실제로 2012년에 시가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60%(59,608명)가 가향물질이 함유된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2~2013년 청소년흡연조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제품을 사용한 청소년(6~12학년)의 40%(126,000명)가 가향시가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가향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 6월 17일에 다시 한번 해당 법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개정내용에는 이전 법에서 제외되었던 시가담배에 대하여 담배함량이 1.4g에서 6g인 시가제품에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여 담배함량으로 법망을 피해오던 담배업계의 꼼수전략에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캐나다 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정책(p.5)" 참고).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조치와 별도로 주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향담배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앨버타(Alberta) 주의 경우 연방정부 보다 앞선 올해 6월 1일에 무연담배와 시가담배 등 시판 중인 거의 모든 담배제품에의 가향물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멘톨은 예외),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멘톨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유럽연합, 가향담배 금지조치로 유럽 내 담배소비 2% 감소 목표

유럽연합은 2014년에 개정된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궐련담배와 말아피는 담배의 가향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의 일부에서는 가향담배를 규제 또는 금지하는 반면 이들 제품을 허용하는 회원국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물자교류가 활발한 지역적 특성상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배사용으로 인한 유럽지역 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법으로 가향담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게 되었다. 해당 법의 시행일자는 201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궐련담배와 말아피는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또한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멘톨의 경우, 전체 유럽담배시장의 3%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제품의 특성상, 4년 뒤인 2020년부터 금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시가, 시가릴로, 무연담배와 같은 담배제품의 경우에도 향후 유럽 내 담배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향물질 규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가향담배 금지 조치로 인하여 법 시행 5년 후에 담배제품 소비가 5%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약 2,400만명의 흡연자가 감소하는 것과 흡사한 수준이다.

국내 가향담배 제품



이 밖에도 가향담배를 규제 또는 금지하는 해외 사례는 다양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향물질에 대한 금지를 우선적으로 단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는 연방정부에서 가향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제정한 바는 없으나 주정부에서 자발적으로 과일향이나 사탕 맛 등의 가향물질을 궐련담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과일이나 과자류 같이 단 맛이 나는 가향물질이 함유된 궐련담배의 시판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가향담배 규제

위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가향담배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가향물질을 담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담배 가향물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른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이다. 이 조항에서는 담배 제조자들로 하여금 담배에 연초(담뱃잎)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 즉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가향물질 함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가향담배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기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KT&G 제품 총 71종 가운데 38%인 27종이 멘톨, 커피, 모히토 등을 제품 특유의 향으로 광고하며 판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품 특유의 맛을 내는 향료 등을 캡슐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담배 필터에 넣고 담배 사용 도중에 터트릴 수 있게 만든 이른바 "캡슐담배"는 가향담배 제품군의 혁신적인 기술이라 불리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KT&G의 자료에 따르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올해 초 8.3%로 급증하였다. 문제는 이들 가향 및 캡슐담배의 주요 고객층이 다른 아닌 어린 연령대, 즉 신규흡연자라는 점이다. 이는 담배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오히려 이점을 노려 캡슐담배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BAT)의 경우, 젊은 성인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이 14개비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 갑에 14개비가 들어있는 캡슐담배를 시장에 선보이는 등 젊은층을 공략하는 데에 캡슐담배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향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라는 일부 업계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KT&G의 캡슐담배 판매 추이



※출처 :
터지면 향기나는 캡슐담배...
2030세대서 터졌네.
(2015년 6월 1일),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50601/71567280/1>

국내 가향담배 규제가 시급한 이유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일 최대 10만명의 전 세계 청소년이 담배에 중독되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WHO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2억5천만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담배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캡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시장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첨가물을 사용하는 그 어떤 제품도 해당 제품의 중독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향담배 규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아닌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조장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마케팅전략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가향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국내 실정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향담배 금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Monthly Index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달의 지표



담배로 인한 사망률

Estimated total number of deaths attributable to tobacco use

지표의 개요 및 의의

매년 6백만명 가량의 세계 인구가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 이 중 5백만명 이상의 사망원인이 담배사용이고, 60만명 이상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흡연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8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담배규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담배 사용으로 인한 사망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담배규제 정책의 영향을 정확하게 수행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WHO 또한 각국이 이와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20조3항에서 요구하는 담배관련 국가조사체계 구축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용어 정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집단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를 통해 산출한다. 담배의 인구집단기여위험도란 전체 사망자 가운데 담배에의 노출로 인해 사망한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담배에 노출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폭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인구집단기여위험도(PAF) 산출방법

인구집단기여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흡연율(Prevalence)과 흡연으로 인한 상대적 사망위험률(Relative Risk)이 필요하다. 흡연으로 인한 상대적 사망위험률이란,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가 특정 요인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흡연으로 인한 상대적 사망위험률이 1이라는 것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망위험도가 같다는 것으로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망에 흡연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 사망위험률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만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므로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흡연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집단기여위험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ext{인구집단기여위험도(PAF)} = \frac{\text{흡연율(상대적 사망위험률 - 1)}}{\text{흡연율(상대적 사망위험률 -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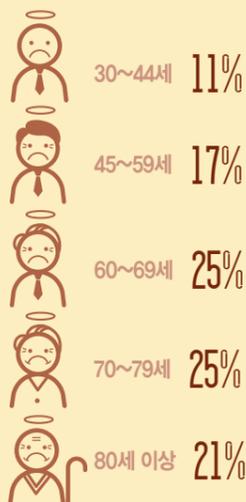
세계 성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세계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우리나라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집단기여위험도에 전체 사망자 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적 사망위험률이 1(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 없음)이거나 흡연율이 0%(담배 사용 없음)인 경우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0명으로 산출된다.

국내외 최신동향

세계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

2012년에 WHO가 발표한 담배로 인한 사망률에 관한 세계 보고서(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 세계 30세 이상 성인인구 사망의 12%가 담배로 인한 사망이며, 성별간 차이를 보면 남성이 16%, 여성이 7%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담배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44세 사망자의 7%, 45~59세 사망자의 14%가 담배로 인해 사망하였다.

지역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지역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남성	여성	성인 전체
아프리카	5	1	3
미주	17	15	16
중동	12	2	7
유럽	25	7	16
동남아시아	14	5	10
서태평양	14	11	13
세계	16	7	12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구분	연령대별					전체 (30세 이상)
	30~44세	45~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명)	382	880	2,304	5,188	12,806	1,482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명)	27	120	333	658	1,227	174
담배로 인한 사망률(%)	7	14	14	13	10	12

(사망자 수 : 10만명 당)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21%이며 남성이 26%, 여성이 15% 수준으로 남녀 모두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지역의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률 역시 30~44세가 11%, 45~59세가 17%로 나타나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구분	연령대별					전체 (30세 이상)
	30~44세	45~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명)	156	496	1,518	3,758	12,723	986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명)	17	82	374	927	2,729	211
담배로 인한 사망률(%)	11	17	25	25	21	21

(사망자 수 : 10만명 당)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금연이슈리포트 창간 2주년 기념 이벤트

금연이슈리포트, 어디까지 읽어봤니?

올해로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금연이슈리포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기존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찾는 신규 독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
방법

2015년 1월~6월까지 발간된 월간금연이슈리포트(www.khealth.or.kr)에서 아래의 문제 5개의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찾아 이슈리포트 구독신청 이메일(tcir@khealth.or.kr)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50분에 한하여 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기간

2015년 6월 30일 ~
8월 15일

당첨자
발표

월간금연이슈리포트 8월호 및 개별통지

문제

01. 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정식 조약으로 발효된 날은 ○○○○년 2월 27일입니다.
02.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예방의 대표적 사업인 금연선도학교는 2014년에는 전국 10%의 학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0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제품 ○○○○ 근절”로 지정하고, 밀수 및 위조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처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04.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을 운영,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05. 전 세계 최초로 담배에 사용되는 모든 가향물질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입니다.

이벤트 참여로 금연이슈리포트 창간 2주년을 축하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지식도 높여보아요!



참고문헌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금연, 한눈에 보기 2012. 서울

한빛향료. (n.d.).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hffaroma.com/product_3.htm

Anderson, S. (2011). Menthol cigarettes and smoking cessation behaviour: A review of tobacco industry documents. Tobacco Control, 1i49-1i56. doi:10.1136/tc.2010.041947

Carpenter, C., Wayne, G., Pauly, J., Koh, H., & Connolly, G. (2005). New Cigarette Brands With Flavors That Appeal To Youth: Tobacco Marketing Strategies. Health Affairs, 1601-1610.

European Commission. (2014). Questions & Answers: New rules for tobacco products.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134_en.htm

Fact sheet on Cigarette Ingredients. (2009). Retrieved June 21, 2015, from <https://www.cancerwa.asn.au/resources/2009-12-22-cigarette-ingredients-fact-sheet.pdf>

Fowles, J. (n.d.). Chemical Factors Influencing the Addictiveness and Attractiveness of Cigarettes in New Zealand. Wellington: Ministry of Health. Retrieved from [http://www.moh.govt.nz/moh.nsf/pagescm/1004/\\$File/chemicalfactorsaddictivenesscigarettes.pdf](http://www.moh.govt.nz/moh.nsf/pagescm/1004/$File/chemicalfactorsaddictivenesscigarettes.pdf)

Framework Convention Alliance. (n.d.). Product Regulation: The Facts.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fctc.org/about-fca/tobacco-control-treaty/the-work-of-the-fca/product-regulation/the-fctc-commitments/293-uncategorised/89-product-regulation-the-fctc-commitments>

Hookah Tobacco and Shisha Flavors. (n.d.).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texashookah.com/shishas.html>

Juicy Jays Flavored Cigar Tobacco by Rolling Supreme. (n.d.).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rollingsupreme.com/Products/Tobacco_Cigars/Juicy_Cigar/

Minaker L, Manske S, Rynard VL, Reid JL & Hammond D. (2014). Tobacco Use in Canada: Patterns and Trends, 2014 Edition - Special Supplement: Flavoured Tobacco Use. Waterloo, ON: Propel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Impact, University of Waterloo.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tobaccoreport.ca/2014/TobaccoUseinCanada_2014_FlavourSupplement.pdf

Nonnemaker, J., Hersey, J., Homsy, G., Busey, A., Allen, J., & Vallone, D. (2012). Initiation with menthol cigarettes and youth smoking uptake. Addiction, 171-178. doi:10.1111/j.1360-0443

Scientific basis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 report of a WHO study group. (200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SWISHER SWEETS CIGARS. (n.d.).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famous-smoke.com/brand/swisher_sweets_cigars

The World Bank. (1999). Curbing the Epidemic: Government and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WDSP/IB/2000/08/02/000094946_99092312090116/Rendered/PDF/multi_page.pdf

Tobacco Control Legal Consortium. (Spring 2013). Legal Update – Global Tobacco Control, What’s in It for You?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publichealthlawcenter.org/sites/default/files/resources/tclc-legal-update-spring-2013.pdf>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d.). FDA Parental Advisory on Flavored Tobacco Products - What You Need To Know. Retrieved June 23, 2015, from <http://www.fda.gov/TobaccoProducts/PublicHealthEducation/ProtectingKidsfromTobacco/FlavoredTobacco/ucm183196.htm>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5). Flavored Tobacco. Retrieved June 22, 2015 from <http://www.fda.gov/TobaccoProducts/PublicHealthEducation/ProtectingKidsfromTobacco/FlavoredTobacco/default.htm>

VAPORFI® | Electronic Cigarettes, Vaporizers and E-Liquid. (n.d.). Retrieved June 23, 2015, from <http://www.vaporfi.com/>

WHO Tobacco Free Initiative(TFI). (n.d.). About youth and tobacco. Retrieved from <http://www.who.int/tobacco/research/youth/about/en/>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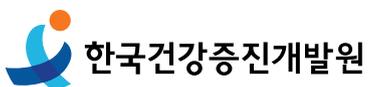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 7월호 예고

2015년 7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
이른바 Point of Sale(PoS) 광고 금지에 관하여 다룹니다.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편의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 실태를 조망해 봅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100-705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문의 TEL 02-3781-3500 FAX 02-3781-2299